

크레이그 키너 박사, 사도행전, 강의 20, 사도행전 18-20장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까지의 20회기입니다.

바울이 다음 장에서 에베소의 회당을 쪼개는 것처럼 고린도의 회당도 쪼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즉 공동체가 분열되었다는 뜻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 그를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아가야의 새 총독 갈리오 앞으로 끌고 가서 율법에 어긋나는 일과 말을 한다고 그를 고소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가 그들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견해였습니다. 그들은 로마법에 어긋나는 것처럼 들리게 하기 위해 모호하게 표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법에 어긋난다면 그가 유대인 공동체에서 분리되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기독교 운동, 그것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로마법 하에서 같은 종류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교는 기술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종교적인 종교(*religio licita*)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그것은 기술적으로 합법적인 종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되었기 때문에 존경할 만하고 평판이 좋은 종교로 여겨졌습니다. 기독교 운동이 그것으로부터 분리된 것으로 간주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유대교와 동일한 경전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종교라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이단으로 간주되어 로마 제국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마에스타, 반역죄로 기소되었는데 이제는 다른 종류의 법적 전략입니다. 바울은 기독교 운동이 참된 유대교, 즉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의 참된 성취라고 주장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유대교에서 분리되고 그들의 법에 어긋난다는 비난을 받는 방식과 달리 그것을 유대교 종파로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유대인 내부의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다른 외국인 거주자 그룹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자신의 내부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자신의 공동체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법이 나오면 로마인들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 경우는 누가복음 23장의 영향을 받은 빌라도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로마법과 로마의 정의가 실제로 따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분적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고린도에서 그렇게 많은 정치적 영향력을 갖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유대인 공동체를 좋아하지 않았고 클라우디우스의 추방으로 인해 로마 내에서 선례가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8:14에 따르면 유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로마에 항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갈리오의 결정은 그것이 단순히 유대인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유대인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레오의 결정은 데살로니카나 다른 곳의 정치가들의 지역적 결정과는 달리, 갈릴레오의 결정은 그가 총독이었기 때문에 단지 지역적인 결정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네로 시대까지 로마 궁정에서 가장 높은 선례를 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로는 네로 시대 이후에 별로 평판이 좋지 않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박해를 가져온 몇 가지 선례를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8절 16절과 17절.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풀 대신에 그들이 맞은 것 같습니다.

도미티아누스는 요세푸스를 고발한 유대인 고발자들을 처벌했습니다. 황제는 유대 지도자들을 고발한 사마리아인들을 처형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눈에 띄게 반유대주의적이고 반유대주의적이었습니다. 비록 Flaccus 등에 대해 물어보면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인보다는 덜하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인 공동체는 회당의 지도자를 상대로 회당 규율을 행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이든 소스데네스는 총독이 단순히 무시한 성난 그리스 군중에 의한 것이든, 회당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의 지도자를 구타하든, 구타를 당합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지도자의 이름이, 실제 일반적인 이름은 아니지만, 소스데네가 고린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공동 발신자로 바울의 편지 중 하나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신자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이 시점에서 이미 신자였거나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크는 여기서 일어나는 일의 세부 사항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그리고 여기서는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여기서 아볼로는 요한의 다른 추종자들과 대조됩니다.

아볼로는 예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서 공개적으로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말 훌륭한 공개 토론가이자 훌륭한 대중 연설가였습니다. 19 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요한의 다른 추종자들이 재침례를 받는 것처럼 아볼로는 왜 예수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친 후에 재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침례교인이고 그는 성공회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농담이에요. 18시 25분에 제 생각에는 이것이거든요. 18.25에는 성령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번역할 수도 있고 주석가들의 의견도 분분한데, 이는 그가 자신의 정신에 열광했다는 뜻일 수도 있다. 그러나 누가의 일반적인 용법과 심지어

로마서 12장에서의 약간의 평행 용법을 고려하면 아마도 그가 성령,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 열심을 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충분히 알고 있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요한을 따르는 이들 다른 추종자들의 경우에는 둘 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19장 2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이 계신지 듣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즉, 성령이 이미 임하셨는지 여부입니다. 내 말은, 그들이 유대교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들은 루아 하코데시(Ruah HaQodesh), 즉 성령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로서 그들은 적어도 성령 세례가 다가올 것이라는 요한의 예언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침례자가 오신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경우에는 바울이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안수한 후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아볼로에게 소급하여 적용되는데 그 이유는 요한이 이미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재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세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 세례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또 에베소에는 물 있는 곳이 많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다시 말하지만,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을 받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 아주 빨리 선교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생각이 분분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의 세례를 막 알고 있는 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단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는 우리 중 소수가 자신들이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아직 회심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논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19장에 속도를 더해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 두란노 학파. 어떤 사람들은 이곳의 스콜라가 후원자의 이름을 딴 길드 홀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원래 제안한 학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강의실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강의실은 두란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두란노는 주인이었을 수도 있고, 집주인이었을 수도 있고, 강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티란누스(Tyrannus)는 아마도 별명일 것이다.

이 단어는 에베소에 몇 번 더 등장하지만 아마도 별명일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진짜 폭군이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강사라면 그 교수님을 모시고 갈 거면 열심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선생님 같죠? 어쨌든, 아마도 에베소를 포함한 아이오니아에서 일을 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고려할 때 아마도 그는 홀 작업을 마쳤거나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오전 11시 이전에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아이오니아 도시의 공공 생활이 끝났습니다. Paul은 아마도 오전 11시까지 육체 노동을 하고 그 이후에는 오후에 학교를 이용하는 등의 일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오쯤 휴식을 취하거나 잠을 자거나 약간의 낮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거나 때로는 둘 다를 위해 휴식을 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정오에 여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자신의 사명이 매우 긴급하다고 생각했다는 의미입니다. 글썄요, 여기 바울은 영이 충만한 교사의 모델입니다.

그는 가르친다. 그는 자신의 문화에서 이미 이용 가능한 교육 장소를 사용합니다. 그는 강사로서, 마치 기독교 철학자처럼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서 철학자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학생들을 두었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면 들어와서 들을 수 있었고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지만, 에베소에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지역 전체, 즉 로마 제국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하나였던 로마의 아시아 지역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 속주에 속한 소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읽습니다.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기적의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도행전 5장과 같은 수준까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부 유대인 퇴마사들은 그를 본받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한 일을 해보자. 유대인의 엑소시즘 기술은 종종 악취나는 뿌리나 악취와 같은 방식으로 사용되어 악마를 쫓아내고 악마를 도망치게 했습니다. Tobit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또한 요세푸스의 고대사 8장에서도 그것을 증명했다고 믿습니다. 또한 유대인의 엑소시즘 기술에서는 이름 호출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Antiquities 8의 누군가는 솔로몬의 마법 반지를 사용하고 아마도 솔로몬의 이름으로 영혼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실제로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실제로 그 권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실제로 그 이름을 사용할 능력도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나는 원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제자라는 말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추종자들의 움직임을 위해 사용했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게와의 일곱 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스게바(Sceva)는 라틴어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요세푸스는 대제사장들 또는 대제사장들인 Archiarius를 복수형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사람이 일반적으로 귀족 성직자 가문 출신인지, 아니면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말해지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그것은 그가 추종자들을 활용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했거나 그들이 문자 그대로 그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주장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1장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바알세불을 통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들의 아들들은 그들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실, 아이러니한 점은 쫓겨나는 것이 마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쫓겨나는 것은 엑소시스트들이다. 어쨌든, 혼합주의는 전통 마술을 혼합하고 최고 신의 최고 이름을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유대 마술에서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일부 사람들도 유대인의 주술 행위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유대인의 대다수가 아니라 마술을 행하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고대에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글썄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이 내용을 몇 번 보았습니다.

제 말은, 여러분은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을 만났는데,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3장에서 엘리마 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어도 유대와 갈릴리에서 주류 유대교가 승인하지 않았을 일을 하고 있는 유대인 퇴마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점은, 보세요, 당신은 기적을 행하는 우리 예수님의 추종자들에 대해 불평하고 싶어한다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대해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성경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관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엑소시즘은 계속해서 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행한 구마 행위는 다른 구마 행위에 비해 매우 효과적이어서 4세기까지도 기독교로 개종한 주요 원인은 구마 행위와 치유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이 귀신들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말하며 말하기를, 나는 예수를 압니다.

폴에 대해 들어봤는데 당신은 누구죠? 즉, 귀하에게는 이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뛰어 올라 두 사람의 옷을 찢었고 그들은 부끄럽게 발가벗겨진 채 도망갔습니다.

당신은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시는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세대는 귀신을 일곱 배나 더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전파된 소문이 영광을 받은 것은 주 예수의 이름이 낮은 영을 주관하는 높은 영의 이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어떤 마술적인 공식이 아니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은 그분의 참된 추종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에 편지를 쓸 때 학자들 사이에 분열이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그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에베소만이 아니라 에베소 주변 지역도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히 에베소는 로마의 아시아 속주라는 맥락에서 특별히 언급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종종 신비로운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연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영적인 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높임을 받으셨으며,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일컬어지는 모든 이름, 예수의 이름이 더욱 뛰어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러한 권세보다 훨씬 높은 하늘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힘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뭐,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정령 등을 조종하려고 사용하던 마법서를 한자리에 모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고백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일부 학자들은 비록 그 표현이 이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지만 아마도 그들의 주문을 폭로하는 것을 포함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현에는 확실히 고대 자료에 그런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문을 누설하고 마법 주문의 힘을 빼앗겼습니다. 그것은 적어도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법의 책을 모아서 불태워버립니다. 고대에는 책의 내용을 부인하기 위해 책을 태우는 일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일과 관련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된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그것은 전체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각된 책의 양, 공개적으로 소각된 금액은 5만 드라크마 상당, 즉 일반 농민 노동자의 약 5만 일 품삯에 해당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마법의 책들을 태워버린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도 큰 공개 장면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실제로 책이 아니라 에페시아 그라마타(Ephesia Gramata)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작은 원통형으로 말아서 만든 마법의 파피루스 주문이나 역주문이거나 목이나 다른 곳에 부적으로 착용하는 로켓이었습니다. Ephesia Gramata라는 용어는 종종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마법의 공식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작은 파피루스 조각이던, 마법의 파피루스이던, 아니면 좀 더 큰 것이던 간에, 사람들은 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갈등은 결국 지역 종교로 인해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신부부터 지역 종교에 이르기까지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사람들의 사업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24절부터 27절).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가슴과 조각상에 있는 구근 모양의 부속물로 인해 에베소의 아르테미스가 다산의 여신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에베소의 순결한 그리스 아르테미스와 대조합니다.

그들은 구근 모양의 부속물이 그녀가 가슴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그것이 일종의 수정란이거나 다산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가진 제우스 동상도 있는데, 이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나는 그녀에게 피부과 전문의가 필요했을지도 모른다는 농담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학적 출처에서 그녀는 여전히 처녀 사냥꾼입니다. 그녀는 전혀 다산의 여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대의 예술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모든 출처는 그녀가 아나톨리아 내부의 어머니 여신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녀는 단지 아르테미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스의 아르테미스이지만 에베소에서는 유명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35절에서 서기관은 아데미의 신상을 하늘에서 떨어진 신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운석일지도 모른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고대에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조각상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운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조각상 중 상당수는 사람들이 조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마찬가지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에베소에는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전해지는 조각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서기관은 이러한 일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말하고 있고, 루크의 청중은 웃고 있습니다. 하하, 이 일들은 매우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녀의 동상은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큰 조각상을 본떠 만든 미니어처 조각상도 많았습니다. 그녀의 사원은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었기 때문에 반유대적인 편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일곱 가지 불가사의를 만들었고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계산한 내용에 따라 전체 베이스 또는 사원 전체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420피트 x 230피트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30미터 x 70미터입니다.

아테네의 유명한 아테나 신전인 파르테논 신전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대한 사원입니다. 그것은 도시에 제대로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택할 수 있는 길, 즉 도시에서 북동쪽으로 약 1.5마일 또는 2.4킬로미터 떨어진 성전 옆으로 나가는 신성한 길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르테미스를 기리는 특별한 달과 그녀의 탄생, 예상되는 생년월일 등을 포함하여 아르테미스를 기리는 특별한 축제를 가졌습니다. 이는 온 아시아와 천하가 경배하는 에베소의 아데미라(19:27).

글쎄, 비록 그리스의 아르테미스인 아르테미스가 전 세계에서 숭배를 받았지만, 특별히 에베소 버전의 아르테미스는 실제로 전 세계에서 숭배를 받았습니다. 알려진 세계에는 30개가 넘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장소는 일반적인 아르테미스뿐만 아니라 특히 에베소의 아르테미스가 숭배되었던 곳입니다. 선교사들은 이단을 퍼뜨렸습니다.

종종 이들은 상인들이었고 그들은 아르테미스로부터 꿈이나 무언가를 얻었고 가서 그것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주변의 유대인들은 에베소의 아르테미스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잘 알려진 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폭동을 실제로 유발하는 것은 경제, 경제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서 데메트리우스는 동료 장인들을 소집합니다. 루크는 그를 선동가로 묘사했습니다.

고대 문학에 등장하는 선동가들은 특히 폭도를 선동하는 사람, 폭동을 선동하는 사람이 선동 혐의로 기소될 수 있었던 로마 제국에서 매우 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데메트리우스는 선동가처럼 말합니다. 그의 연설의 수사법은 매우 포퓰리즘적이어서 고대 웅변가들에 의해 매우 멸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은신전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많은 신전은 아르테미스의 기념품 신전인 테라코타입니다. 즉, 관광객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고, 순례자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일종의 기념품으로 실제 아르테미스 신전을 모델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은이 더 유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당을 만드는 자 중에 그는 정예의 사당을 만드는 자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노동자다.

그는 가장 존경받는 장인 계급 중 하나였던 은세공업자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장인이다. 따라서 그는 그 자체로 엘리트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가 비슷한 거래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성소를 만드는 데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작에 참여한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금속 세공인이었던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대부터 아르테미스의 금은 조각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 외에도 1.4~3.2kg의 조각상도 있습니다.

음, 경제적 문제는 많은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곡물을 수입한 로마에서도 곡물을 많이 재배하는 이집트의 아이들은 종종 굶주렸습니다.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한 로마에서도, 특히 제국의 중심부에서는 때때로 곡물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음, 여기에는 경제학이 포함됩니다. 이 은사당을 만드는 데에는 그들의 생계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에베소에서 어려움을 겪은 다른 사례들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막대한 토지를 소유한 아르테미스 신전의 자금 일부를 유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에 설명된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몇 년

전에 큰 스캔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과 꽤 잘 들어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고대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의 다른 지역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왜 체포되어 매를 맞았는지 기억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Pythonists의 정신으로 말하는 누군가의 경제학을 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교 종교의 경제학을 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번은 제가 거리 선교부에서 일할 때 거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거리에서 사람들을 돕고 먹이를 주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었던 한 지역에는 성경에서 금지하는 성행위를 많이 다루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그들과 너무 가까워서 그들의 고객과 사업을 방해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제적 영향력과 우리가 사람들을 무료로 돕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강제로 도시의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에베소의 아르테미스에게 매우 충성스러웠습니다.

내 말은, 이것이 그들의 시민 충성심의 일부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민 충성심은 큰 일이었습니다. 민족주의 같았어요.

그리고 애국심 같은 것을 건드리면 폭동이 쉽게 퍼질 것입니다. 특히 고대 도시 사회의 긴밀하고 공공적인 구조를 고려할 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무역 길드는 그들이 빠르게 여행할 수 있는 곳 중 하나였다.

그리고 군중은 극장에 모이게 됩니다. 이제 발견된 유적을 토대로 데메트리우스가 있었던 곳이나 그가 연설하던 길드가 있던 곳이 어디였을지 추측되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Arcadius Street에 있거나 나중에 Arcadius Street으로 알려지게 된 곳으로, 항구에서 극장까지 직접 이어지는 거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시장에 조금 더 가깝고 극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동요하는 동안 갈 길이 멀지 않았다. 시장은 극장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찼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 가서 이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매우 빠르게 폭동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장에서는 아주 빨리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극장은 거대했다. 항구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항구가 있던 곳에서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거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좌석수는 20,000명이 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25,000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1세기 후반에 약간의 확장이 이루어진 후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아직 25,000명이 아니라 20,000명이 넘었을 수 있으며, 이는 이 시점에서 에베소의 인구가 약 200,000명 정도였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비는 시장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극장은 시민 집회, 정기적으로 모이는 정기 시민 집회, 때로는 누군가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비정기 시민 집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이 에베소 극장으로 몰려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에베소 비문으로 출판된 에베소 비문을 통해 에베소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극장에 달려드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것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소집된 비정기적인 집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혀 모른다. 그냥 폭도일 뿐이에요.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동안 사도행전 21장에서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당신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이런 일이 가끔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있고 그 뒤에 있는 실제 문제에 대해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31절에 아시아 장로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극장에 들어가기 원하지 아니하고 특히 아시아 장로들이 들어가기 원하지 아니하더라 데메드리오는 바울을 찾지 못하고 바울의 동료 두 사람을 붙잡아 그리고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 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아시아왕들은 그들 중 다수가 아시아 제국 숭배의 사제들이었습니다.

아시아왕들이 자동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같은 그룹, 종종 큰 기부를 한 같은 엘리트 사람들 등에서 선택되었습니다. 황제 숭배는 에베소에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는 아우구스투스 이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소아시아 최초의 제국 사원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시아 족장들은 왜 바울의 친구였습니까? 고대에는 친구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의 이상은 신뢰를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고, 기꺼이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공유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특히 로마 문화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화에서도 후원자와 고객, 그리스 세계의 후원자와 그 가족을 위한 완곡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글쎄요, 아시아인들이 명예와 비문을 그들에게 바치는 방법 중 하나는 공공 사업에 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때때로 예술 후원자나 교육 후원자라고 부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공익을 위해 물건을 후원했습니다. 음, 여기 풀이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 선생님이에요. 매우 인기 있는 이 인기 있는 교사를 후원하는 것보다 스스로 명예를 얻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그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봐, 우리는 그 일에 참여했고 그를 후원함으로써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 대한 스캔들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그와 연관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허위 스캔들이라는 것을 안다면 최소한 뒤에서 일하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가능한 한 Paul과 최소한으로 연관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뒤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합니다. 폴,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바울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전도하러 가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성전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를 데리고 나가고 폭동이 다시 시작되더라도 그는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여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아시아의 왕들이 그를 위해 목숨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회 구조 측면에서 그들에게 빛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31절에서 아시아 장로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교 사회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글썬요, 아마도 그들 중 한두 명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가 세르기오 바울로에게 했던 것처럼 그것을 안다면 그 사실을 언급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유일신교를 설교했습니다. 그가 에베소의 아르테미스에 대해 설교하고 있다는 이유로 데메드리오로부터 비난을 받은 것입니다.

글썬, 분명히 그는 특정 신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참 신은 오직 한 분뿐이므로 다른 신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설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는 에베소의 아르테미스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유일신론자로서 그는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기독교적이지 않은 사회, 즉 모든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사회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사회를 의미하는 사회에서 우리에게 좋은 모델입니다. 그는 여기서 우리에게 분리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통합하고 문화에 도달하는 모델을 제시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세상이 당신을 미워한다고 말하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류의 사회적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박해를 받을 때, 당신이 박해를 받을 때, 음, 선이 더 뚜렷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도 이것을 봅니다. 내 말은,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글썄요, 우리가 그가 하는 일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그의 말을 기쁘게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대신에 성적 부도덕, 물질주의 등 세상의 가치관을 흡수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희망과 빛, 진리와 평화, 좋은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세상의 나쁜 것들에 영향을 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세상의 모든 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성경의 각 부분에서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봅니다. 때로 사람들은 둘 중 하나만 선호하므로 우리는 시대가 무엇인지,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민감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역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지만, 이 기회는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서기관이 일어나서 극장에 들어와 고대 신들을 위해 자주 사용되었던 성가를 부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연설합니다. 그들은 단지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 하고 그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음, 우리가 고대부터 알고 있던 그런 종류의 성가입니다. 그것은 여신을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이 들어옵니다.

누가는 그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폭동이 무엇인지조차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풀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구청 직원이 들어옵니다.

그는 많은 곳에서 단지 서기관이었던 grammetus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법률 문서를 돕는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그것이 관원장의 칭호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에베소의 최고 관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극장의 플랫폼에 올라오자 군중이 어느 정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극장에는 아르테미스 조각상과 주변에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전체적으로 에베소와 같은 이교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를 보면 조용해집니다. 이것이 비정기적인 의회라면, 그 사람이 그 책임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조용해진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말하는 것을 아무것도 듣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쎄, 어쨌든 그들이 어떻게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까? 글쎄요, 일반적으로 극장에서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음향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마이크가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조용해지면 그의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는 데메트리우스가 폭동을 선동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마도 바울의 후원자인 아시아 관원들은 군중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 배후에 있는 그들의 동료인 이 도시 관리에게 소식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데메트리우스를 선동가로 분명히 비난합니다. 이제 명예와 수치의 사회에서 이는 데메트리우스가 아마도 반격을 원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시 서기관은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면 법원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풀이 나중에 마을에 가지 않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39절과 40절에서 합법적인 집회에 대해 말합니다.

이런 문제는 합법적인 집회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는 법원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지사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주지사가 암살된 직후 그의 자리를 대신하는 두 사람이 있었던 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에베소는 우리가 아테네와 데살로니카에 대해 말했듯이 자유 도시였습니다.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상원과 의회가 있는 자유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적으로 로마의 선의에 달려 있었습니다. 도시 내 갈등은 때때로 로마의 개입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총독, 또는 아마도 이 기간 동안 총독의 본부는 에베소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도시가 특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소아시아의 일부 그리스 도시들은 폭동으로 인해 특권을 잃었습니다. 음, 루크, 나는 루크가 이야기하는 방식을 좋아해요.

그는 낙관적입니다. 그는 긍정적이예요. 그러나 그는 반유대 폭동에 참여한 요세푸스와 비슷합니다.

유대인에 대한 폭동이 일어났을 때, 요세푸스는 다음과 같은 판례, 법적 판례를 보고했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이걸 그들의 잘못이 아니었어." 이것이 그들의 권리입니다. 그들은 권위자들에 의해 주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항상 유대인 공동체가 폭동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했습니다. 이제 누가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 바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항상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에 대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쓴 바울은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바울에 대한 주요 고발 중 하나인 사도행전 24장과 5절에서 바울에 대한 최초의 고발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글쎄, 그는 폭동을 일으키기 위해 돌아다닙니다. 따라서 그는 사형죄에 해당하는 선동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바울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폭동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그런 장면이 있고, 사도행전 14장에도 이런 폭도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그 폭동을 시작합니까? 글쎄요, 도시에는 종종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에베소의 유대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과 마찬가지로 그곳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없습니다. 16장과 19장 모두 바울이 유일신론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교도 소식통으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는 유대인 공동체가 그로 인해 비난을 받게 됩니다. 폴은 무대에 오르지 말라는 간청을 받았기 때문에 무대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공동체의 누군가가 바울이 분열시킨 회당에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회당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신자로서 바울과 함께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남은 회당 사람들은 회당원인 알렉산더를 세워 바울을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유일신론을 설교하고 아데미를 반대하는 설교를 한다고 비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일과 연관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를 흔들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커뮤니티입니다. 그러나 군중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더욱 큰 에베소의 아데미는 위대하다고 외친다.

그래서 지역 유대인 공동체는 비록 그들이 이 폭동을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1장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이방인인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에베소 회당 출신의 유대인들이 될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폭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바울은 그 폭동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고 왜 루크가 자신의 방식으로 이것을 개발하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처음에 주장했듯이 이것은 진정한 자료가 될 것이지만 누가복음에는 모든 것이 포함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많은 것을 생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강조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 서기관은 데메드리오를 모욕했지만 아시아 지도자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20장과 16절에서 바울이 에베소를 우회하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많은 평론가들, 벤 위더링턴(Ben Witherington), 나와 다른 사람들은 종종 이에 대해 주장해 왔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누가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명시적으로 이 기능을 제공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자신이 가는 밀레도로 장로들이 오기를 기다려야 할 때, 바울이 에베소를 우회할 시간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 일부는 그의 배가 어디로 여행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 환대 의무로 인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에 가면 모두가 여러분을 방문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모두가 당신이 방문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방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이 없는 문화에서는 우리가 그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대 의무에 익숙한 문화에서는 이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도시에 있는데도 방문을 멈추지 않으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리고 고대 편지에는 사람들이 '오, 당신이 30마일 이내에 왔는데 나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나 다쳤어. 그러나 누가가 언급하지 않은 추가 요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이 환영받지 못했고 아마도 바울이 에베소에 나타난 것이 유익보다 교회에 더 많은 해를 끼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아시아 왕들이 그를 좋아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낮게 유지되는 것이 모두에게 더 나았습니다. 따라서 Paul은 이 시점에 개인적으로 그곳에 오지 않습니다. 그가 메시지에서 할 말은 '당신은 내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의 처음 몇 구절에는 바울이 다시 아가야로 여행하며 그들과 함께 겨울을 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는 거기에서 계속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유두고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루크는 수년 후에 그들과 다시 합류하고 그들은 6일 동안 여행합니다. 그들은 빌립보의 항구 도시인 네아폴리스를 떠나 드로아로 건너가기 전 이틀 간의 항해에 비해 순풍이 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트로아스에서 신자들에게 말하고 있었고 그들은 분명히 일요일 저녁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인지, 일요일 저녁인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모든 증거를 합치면 밤새도록 지속되는 일요일 저녁 모임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글썄, 이것이 일요일 밤샘 집회를 여는 선례인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번 주일 집회를 밤새도록 열었던 이유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 다음 날 떠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그들과 관련된 일을 따라잡으려면 그는 밤을 새워야 하고 그들도 그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밤을 새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이곳은 유두고가 잠든 곳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앞에서 자는 것은 나쁜 일로 여겨졌습니다. 때때로 교사는 실제로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 말 그대로 책을 학생들에게 던졌습니다.

우리는 고대로부터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창문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창문은 종종 상당히 컷습니다.

그것은 작은 창문 아래에 몸을 비집고 들어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종종 상당히 컸으며, 특히 벽의 더 높은 곳에 있는 창문이 그러했습니다. 나는 이 창문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기 위해 많은 출처를 조사하면서 고대 건축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간에는 창문에 유리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유리는 존재했지만 일반적으로 창문에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창문에서 그런 일이 매우 드물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나무로 된 덧문이나 휘장 등을 갖고 있는데, 일년 중 특정 시간에 열리고 특정 시간에 닫힙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마도 큰 창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왜 창가에 앉아 있고 왜 잠들고 있나요? 그것은 때때로 누가가 등잔대를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연결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등대에 실제로 빛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전복적인 집회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름 냄새나 기름의 온기가 그를 잠들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 냄새가 많이 나는 친구들은 기름 냄새가 자기들에게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기름 냄새나 따듯함 때문에 창가 자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을지도 모른다.

비록 올해 이맘때는 날씨가 이랬을 수도 있었을 거라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요점은 조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잠들었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창 밖으로 떨어지고 바울은 내려가서 그를 연상시키는 어떤 언어로 그를 키웁니다. 그에게 넘어지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사람들을 키웠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이제 이것은 WE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자신이 증인이 되는 곳에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살아서 끌려갑니다.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가 조금 현기증이 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살아 있고 건강합니다. 특히 그가 착륙하는 방식은 그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대에는 사람들이 물건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지는 등의 다른 보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는 내가 설교하는 동안 잠이 들었다고 말합니까? 지루할 것 같아요. 모두 집에 가세요.

아니요, 그는 끝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갔다가 다시 함께 먹고 또 함께 빵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행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석에서 더 많이 다루고 있지만 20장에서 그가 여행한 모든 장소를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21장에서 그 중 몇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늦어도 고별 연설을 합니다. 고별 연설은 실제로 고대 연설의 한 범주였습니다. 사실 유대 문학에서는 누군가가 곧 죽을 것이라는 유연장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대문학에서는 고별 연설을 자주 하더군요. 18절부터 35절까지에서 바울은 매우 급히 모여서 모든 것을 버리고 밀레도에서 그를 만나러 와야 했던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와 심지어 표현에서도 많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Steve Walton이 쓴 전체 논문이 있었습니다. 이를 언급한 다른 작품도 많이 있습니다. 스티브 월튼(Steve Walton)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와의 유사점을 언급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중 하나입니다. 아마도 바울의 가장 초기 편지는 아닐지라도 그의 두 번째 편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바울서신과의 유사점, 매우 많은 유사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바울이 장로들에게 연설하고 있다는 것을 읽습니다. 그는 그들을 감독자로 언급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목자로 삼으셨는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디도서 1장의 이 용어들, 특히 베드로전서 5장의 목자들을 포함하여 동일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1세기에는 교회 장로들도 감독자, 즉 나중에 사용되는 언어인 에피스코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그나티우스에 도착할 때쯤에는 우리가 주교라고 부르는 사람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빠르게 발전했지만 이 기간 동안 이들은 여전히 감독자, 아마도 지역 교회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본문의 일부를 올바르게 읽고 있다고 해도 지역 교회마다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목자였고 목사였습니다. 목사님은 라틴어로 목자를 뜻하고, 그리스어로 포이메인을 뜻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흔히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목자는 지도자에 대한 빈번한 은유였으며, 심지어 수메르 문학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카디아 왕으로서 자기 백성의 목자였던 아가멤논 호메로스의 이야기에는 곳곳에 있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이들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들은 양 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양떼를 섬기는 사람들이고 양떼를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도덕가와 철학자들이 자주 그랬던 것처럼 그들에게 자신을 모범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26절에서 밤낮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집집에서나 큰 집회에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 말한 후에 26절에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고 말합니다. 글썄, 그것은 에스겔 33장 8절과 9절, 에스겔 3장, 에스겔 33장처럼 들립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28절에서 목자들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에스겔 34장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연결에 대해 Luke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실제로 했던 연설을 기억하고 있으며, 바울은 실제로 에스겔서의 일부 성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도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조심하라 너희

중에서 이리가 일어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린양처럼 이리 가운데 보내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우리는 이리가 그들 가운데로 올 것이며 어린 양들 가운데로 올 것임을 봅니다. 나중에 볼 수 있듯이 거짓 가르침은 에베소에서 매우 큰 문제가 되었으며 다른 많은 곳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소한 일에 대해 사소한 차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일들은 점점 더 커지고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정확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일로 교제를 깨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거짓 가르침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늑대처럼 변하면,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양을 착취하기 시작하면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은 장로들을 임명했습니다. 아니면 아시다시피 에베소에서는 이제 그들이 장로들을 임명할 만큼 충분히 성숙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심각할 수 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몇 년 전에 함께 시작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친구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내 말은, 그 당시 주님을 섬겼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전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역에 있어서 아주 가까운 친구 중 떨어져 나간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일부는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내 말은, 그들은 아직도, 내 말은, 그들은 기독교인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들이 그것으로 인해 피해를 입도록 놔둘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양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성령은 예루살렘에서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도시에서 증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으려는 희생의 모범의 일부라고 말합니다. 비록 성령께서 각 도시에서 이것을 증거하실지라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소명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에 이끌렸습니다. 알다시피, 그것이 당신 내부에서 불타오르면 당신은 그것을 할 것이고 아무것도 당신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으로 사람들을 뛰어넘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소명을 이행할 것입니다. 죽음 그 자체를 포함하여 그 무엇도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께서 각 도시에서 그를 증거하십니다. 아마도 예언의 영일 것입니다. 그 후에 그가 두로로 갔을 때와 가이사랴에 들렀을 때 이런 예언을 받는 예가 있습니다.

두로에서는 그들이 영으로 그에게 가서 가지 말라는 말을 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의 11절에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매우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이는 아마도 두로에서도 일어난 일의 핵심일 것입니다. 어쨌든 애증이 많아요.

연설할 때 파토스를 사용해야 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이 몇 명 있었지만 대부분의 연설가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내 말은, 어떤 것들은 감정, 비애, 그리고 종종 동정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말할 때 자주 사용되었으며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내가 눈물로 너희를 권면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끝날 때쯤이면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에 대한 그들의 애정은 루크가 단지 폴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함으로써 전달할 수 없었던 것을 전달합니다.

모두가 폴을 좋아해야 합니다. 글쎄, 사람들이 폴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배경에 따라 바울의 서신에서 확고해야 할 부분을 취하고 다른 부분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는 목회적인 관심과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물론, 때때로 그는 확고한 태도를 취합니다. 하지만 그 확고함의 상당 부분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과 배려에서 비롯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목숨을 바쳤을 것입니다.

마치 젖을 먹이는 엄마가 자기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그 정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소명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인지 내성적인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는 아마도 외향적인 사람이었을 것이다.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라 아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아마도 내성적인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습니다. 피터는 확실히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그들이 우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그들이 그에게 키스하는 것을 봅니다. 이제 그 당시 키스가 행해진 방식을 기억해 보십시오. 문화마다 다르게 행동합니다.

러시아 전통 문화에서는 입술에 키스를 할 수도 있고, 프랑스 전통 문화에서는 볼에 키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문화에서는 위생이 좋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내 우주 거품 근처에도 가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화마다 다르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고대 지중해 문화에서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생이 키스로 인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신은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나 당신의 후원자에게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손에 키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키스는 격정적인 키스가 아닌 입술에 하는 가벼운 키스였다.

그것은 연인들을 위해 예약되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에 가벼운 키스만 하면 된다. 선생님은 학생의 이마 등에 뽀뽀를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가족들은 입술에 가볍게 뽀뽀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이 폴을 배웅할 때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21장으로 넘어가서 바울의 여행과 예언, 그리고 바울이 언제 다시 곤경에 빠지게 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그렇게 빨리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사도행전 18장부터 20장까지의 20회기입니다.